

운천저수지 음악분수

7일 오후 8시 새롭게 단장된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내 폭 60m, 높이 40m의 음악분수가 LED조명 속에 첫 가동되고 있다. 운천저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8개월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휴양지에도 월드컵 열기

광주·전남 곳곳 할인행사·이벤트 고객 유치전 치열

사용료 문제 ... 대형 스크린 응원전 크게 줄 듯

광주·전남지역 휴양시설이 월드컵 맞이로 분주하다.

할인행사는 물론 오락 이벤트, 남아공 와인 시판 등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고객 유치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치열하다.

이번 월드컵은 SBS가 독점중계권을 내세워,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응원전을 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응원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화순 금호리조트는 한국과 그리스전이 열리는 12일, 아르헨티나전이 벌어질 17일에는 빨간 응원티셔츠를 입은 고객에게 아쿠아나 시설 이용료를 40% 할인해준다. 또한 월드컵 개막일인 11일부터 22일까지 아쿠아나 매표소 앞 접수함에 응원 메시지를 넣은 입장객을 대상으로 추첨(26일)을 통해 아쿠아나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은 월드컵 기간 동안 17층 스카이라운지의 파

리뷰 레스토랑에서 남아공 월드컵 유일의 공식 지정 와인을 판매할 예정이다. 축구공이 그려져 월드컵 와인이라 불리는 '니더버그 2010 까베르네소비뇽'(750ml)이 7만원에 판매된다. '케세드럴 셀라 피노타지'와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과 판매된다.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월드컵 한국전 경기가 있는 12·17·23일에 워터파크에서 가족·친구 단위로 5인 1조나 3인 1조로 팀을 짜 축구 대신 수구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리산 한화리조트는 실내에 스크린을 설치해 경기관람을 할 예정이다. 12일은 모든 객실이 예약된 상태이며 17일 또한 온돌객실은 오래전에 예약 만료된 상태다.

한편 올해 SBS와 FIFA가 독점중계권을 계약하면서 SBS는 "월드컵 경기 영상을 전시 혹은 관람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할 경우 영상 사용과 관련해 공식중계권자와 개별협상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대형 스크

린을 이용한 응원전을 펼칠 경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중계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양시설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 직장인 50%

직장인의 절반이 남아공 월드컵 기간에 거리응원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41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거리응원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은 49.8%, 여성은 49.3%가 참여 의사를 밝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편 거리응원에 나설 사람으로는 친구(37.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연인(34.5%)이나 가족(18.5%), 직장 동료(9.0%)를 고른 응답자들도 많았다.

/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제 2탄

PD수첩 오늘 밤 방영

MBC는 8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PD수첩'에서 검찰 스폰서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작진은 대검 검찰부의 검찰 자료를 확보해 검찰 내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전직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범죄예방위원을 만나 검찰 조직 내 스폰서 관행에

대해 취재했다.

제작진은 “작년 대검 인사계의 계장과 서울고검의 감찰계장이 톨살롱에서 성접대 포함 혐의를 받았다는 진정서가 대검 검찰부에 접수됐다”며 “감찰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성매매를 했다는 톨살롱 여종업원들의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대검 검찰부는 증인 조사 없이 증거 없음,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내버스 노사 갈등

“노사정 협의체 신설” ... 使 “단협 개별협상하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또 노조 측이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수정 및 노·사·정 협의체 신설 등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최근 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을 거부했다며 사업자들을 광주 준공영제에 고발했다. 또 노조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즉각적인 단체임금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이

가입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각 사업장 별 개별협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임금협상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단체협상을 할 경우 합의안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해 사업자들이 개별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합의점이 안 나와 향후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일단 노·사간 대화를 지켜본 뒤 협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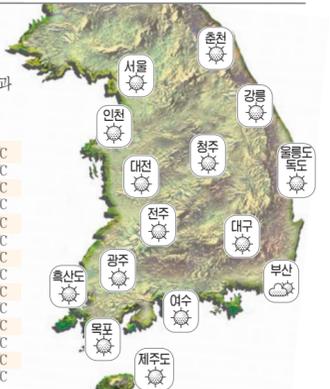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5분 달돋이 01시 53분 달질 15시 33분

햇볕이 팽팽

대체로 맑겠으나,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18/31℃
목포	맑음	17/27℃
여수	맑음	17/25℃
완도	맑음	16/29℃
구례	맑음	15/31℃
해남	맑음	16/30℃
장흥	맑음	15/30℃
고흥	맑음	15/29℃
순천	맑음	17/29℃
영광	맑음	16/28℃
진도	맑음	15/29℃
전주	맑음	17/31℃
남원	맑음	15/30℃
옥산도	맑음	14/22℃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1.0~2.0	매우높음	주의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0.5m	목포 10:25	04: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여수 05:36	11:4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0m		18: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최저/최고	18/31	18/27	18/27	18/29	18/29	18/30

광산구청 공무원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특혜

감사원, 3명 징계 요청

광주시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토지매입에 있어서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면서 대상 토지의 66%만 확보해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공무원들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수용권을 부여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광산구에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토지감평을 의뢰, 각각 11억5200만원과 10억7200만원이 나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1억5200만원에 매각했으나, 2009년 11월 감사원이 보상시점 토지감평가가를 의뢰한 결과 17억7732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산구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간강사 자살 사회적 타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를 죽임으로 내모는 대학비리의 척결과 시

간강사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아까운 지식인들이 생활고와 차별, 대학의 비리를 견디다 못해 좌절해 생을 마감한 것이 1998년 이후 8번째”라며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착취와 억압의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아심차게 준비한 각질관리기~!!”

신일이 만들면 모터부터 다릅니다.

47년 전통의 신일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판구멍: 10mm x 10mm x 10mm

99,000원 → 39,800원

SHINIL

구입문의: 031-454-3110